교회소식

- 세광교회 사경회
  - 일시: 2019. 6. 14-16 (금-주)
  - 강사: Dr. Bryan Widbin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 주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로우심을 닮은 교회
  - 포스터와 초대장을 인쇄했습니다. 필요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메시지/톡 등으로 전달하실 수 있게, 교회 홈페이지에 포스터 그림 파일(jpg)을 올려두었습니다.
- 담임목사는 6월3-7(월-금) 예수서원(Oyster Bay, NY)에서 진행하는 예수변증인문학 세미나에 다녀옵니다.
- 6월 13일 목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 시간: 오전 10시-오후 12:30분
  - 준비물 : 고무 장갑
  - 청소 후 간단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 교육부: 2019 VBS
  - 일시: 6/27-29, (9:00am-12:30pm on 6/27-28 and 9:00am-2:00pm on 6/29)
  - 등록: 교회 홈페이지에서 online 등록 또는 신청서 직접 제출
  - 친교 후 **Volunteer 오리엔테이션**이 Sunday School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6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윤정호 집사 (시 24-35)
이번 주 친교: 홍영순 집사, 이영희 권사
다음 주 친교: 백혜욱 집사, 강승연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9권 21호 2019년 6월 2일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창세기** 수 8pm / 2층 친교실
풍요로운 삶 TBD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All Who Are Thirsty"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Acts 4:5-22**	Pastor Kim
Sermon	**"In Jesus Name!"**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Together
Closing Praise	"Living Hope"	Together
✱Benediction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찬양하라 내 영혼아" Blessed the Lord, O my soul	다함께
✱경배와 찬양 Worship &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시 97 Psalm 97	오영숙 집사
찬양 Anthem	"할렐루야 그 때에"	세광 찬양대 Sekwang Choir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이사야 43:1-7** Isaiah 43:1-7	인도자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설교 Sermon	**"가운데로"**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391장(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A Wonderful Saviour is Jesus My Lord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하나님의 성 시편 48

지난 주에 살펴본 시편 46편과 오늘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는 시온 성입니다. 아마도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진 것도 같습니다(사 37이하 참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전히 튼튼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시온 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었기로서니 그 표현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왕의 성,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허망한 과장이나 어불성설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패배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이라고 하십니다(사 42:6; 49:6).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부르셨습니다.(창 12:3; 22:18).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부르심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에 버거워 멸망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려고 할 때 위기가 임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강대국을 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욱 거대한 강대국을 통해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위기를 당하게 하십니다(사 8:6-8). 이스라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열방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의 영광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빛, 땅의 소금으로 부르십니다.

교회의 영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자기 힘으로 영광을 떨치려고 할 때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과 근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한 교회의 위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만, 은혜만을 영광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서, 큰 건물을 짓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교회가 세상의 빛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잊은 교회가 당한 위기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타락으로 쇠락하는 것이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처소이며(갈 4:24-2), 우리의 모임은 하늘의 의롭게 된 자들의 모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히 12:22-23). 오늘 시편의 명령대로 그 망대와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세우셨는지 깨닫고 감사드리며 담대합시다. 후대와 세상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증거합시다. 열방의 빛된 시온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Memo